

전남개발공사, 취약계층 지원 복지 안전망 강화

복지기동대 5억원 기부...주거환경 개선 활동 확대 일상 생활 불편 해소 등 위기가구 조기 발굴 노력

전남개발공사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기부와 현장 봉사를 병행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개발공사는 27일 전남도청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5억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종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것

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복지기동대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의 복지기동대 지원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지원금은 이번 기탁금을 포함해 총 18억원 규모다.

공사는 기부에 앞서 지난 24일 나주시 봉황면에서 복지기동대와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현장에는 공사 ESG봉사단 16명을 비롯해 전남도와 나주시, 소방서, 지역 복지기동대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진행했다. 전기밥솥과 이불, 선풍기 등 생활가전과 생필품도 함께 지원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복지기동대와의 협력을 통해 일상 속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충모 사장은 "복지기동대는 도민 생활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살피는 대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기부 5억원을 포함해 누적 기부금이 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27일 전남도청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5억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여수시 SNS 서포터즈, 거문도·백도 기획취재 활동 돌입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 조성 천혜 자연경관 가치확산 홍보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최근 다도해 최남단 섬인 '거문도'와 '백도'에서 섬 기획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 조성과 함께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거문도와 백도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SNS 서포터즈 12명이 참여해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발, 2시간 만에 거문도 서도에 도착 후 백도 유람선 승선 '백도' 탐방에 이어 거문도 수월산 일원 탐방을 끝으로 고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둘러봤다.

백도는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된 국가 유산으로 상백도·하백도 등 39개 무인 군도로 이뤄져 기암괴석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흑비둘기와 팔색조 등 희귀조류를 비롯해 풀란·석곡 등 353종에 이르는 식물과 다양한 해양생물이 잘 보존된 천연생태계의 보고이다.

경관·생태·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거문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최근 다도해 최남단 섬인 '거문도'와 '백도'에서 섬 기획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도 수월산에는 거문도등대, 해안 절경, 낙조 경관을 볼 수 있다. 이 일대에는 동백나무 숲과 남해안의 다양한 식생이 잘 보존돼 있으며 희귀 조류가 서식하는 등 생태학적 가치도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거문도는 과거 남해안 방어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거문도 사건' 등 근대 해양사의 국제 정치사의 주요 흔적을

지닌 장소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진영 서포터즈는 "기상 여건이 맞아야 방문할 수 있는 거문도와 백도를 탐방·취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담은 콘텐츠를 통해 거문도·백도의 지리·생태·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 명승 2곳을 보유한 거문도·백도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 준 여수시 SNS 서포터즈에게 감사하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 섬만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한국전력 나주본사, 김재군 상임이사 선임

전력망 구축 적임자 발탁



장, 신송전사업처장, 부산울산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최초 육지와 제주를 잇는 전압형 HVDC(초고압 직류 송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신송전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력망 건설과 운영 전반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력망 적기 구축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전력공사는 27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재군 전 부산울산본부장(사진)을 상임이사로 선임, 전력계통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김재군 전력계통본부장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경일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한전에 입사해 대구 경북건설사업, 대구본부 전력관리처

영광향교 김옥환 전교·김강혁 유도회장 취임

영광향교를 이끌 김옥환 제41대 전교와 김강혁 26대 유도회장이 취임했다.

영광향교는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전교·유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옥환 전교와 김강혁 유도회장은 앞으로 2년간 향교 운영을 맡는다. 앞서 성금태 전교와 이춘식 유도회장은 이임했다.

행사에는 정병국 영광교육장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장과 박대하 전남향교재단 이사장, 양동인 전남향교 전교협의회장, 문영수 성군관유도회 전남본부 회장 등 100여명의 유림들이 참석했다.

이중 김옥환 전교는 영광김씨로, 사업가로 활동한 뒤 고향에 정착해 무령서원 회장과 영광향교 장의 등을 역임하며 지역 유교



문화 계승에 힘써왔다. 김강혁 유도회장은 경주김씨로, 4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친 뒤 송림서원 회장과 영광향교 사무국장을 지내며 향교 운영에 참여해왔다.

영광향교 관계자는 "새로 취임한 전교와 유도회장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계승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향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98@gwangnam.co.kr

동신대-광주출입국사무소

유학생 대상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 호응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최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등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내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인 등록을 위해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내에서 지문 채취와 등록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신대는 지난달 1일 외국인 유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1차 지문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16일에는 149명을 대상으로 2차 서비스를 진행해 총 352명의 유학생이 지문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동 부담과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유학생들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 비자·체류 관련 행정 지원, 생활 안내,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동신대 박재민 국제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



광주시북구체육회 정희환 회장과 김용정 상임부회장 등 임원진과 직원들이 지난 26일 막을 내린 '2026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북구체육회 '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 응원

광주시북구체육회는 정희환 회장과 김용정 상임부회장 등 임원진과 직원들이 지난 26일 막을 내린 '2026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27일 밝혔다.

방문단은 경남 김해정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광주 60대 남자 축구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금 전달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였다.

광주팀은 이날 강원도와의 경기에서 뛰어난 팀워크와 완벽한 협력 플레이로 3대 2 승리를 거뒀다.

정희환 북구체육회장(리치씨엔에스대표이사)은 "멋진 60대 축구선수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투지가 북구체육

회의 큰 자부심이며 힘이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지원을 약속드리며 선수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구체육회 임직원들은 분화배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한편 광주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 31개 종목에 700명이 참가해 총 51개의 메달(금 10개, 은 21개, 동 20개)을 획득했다. 김도, 아구, 족구, 줄넘기, 축구 종목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으며, 축구 단체전에서는 60세 이상 남자 일반부와 여성부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27일 용산차량기지에서 상반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교통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개최

복구 훈련·위험 작업 참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발굴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27일 용산차량기지에서 상반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공인노무사, 간호학 교수,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점검했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 참관과 회의를 연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전기팀의 전차선 단선 사고 복구 훈련과 신호팀의 레일본드 취부 작업을 직접 참관하며 작업 절차와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로 위험성 평가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작업 관리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향후 논의의 결과를 반영해 위험성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석환 사장은 "현장 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